

숭고한 언어의 싸움에 가담한 시의 풍경들

98년 상반기 주요 시집 읽기

신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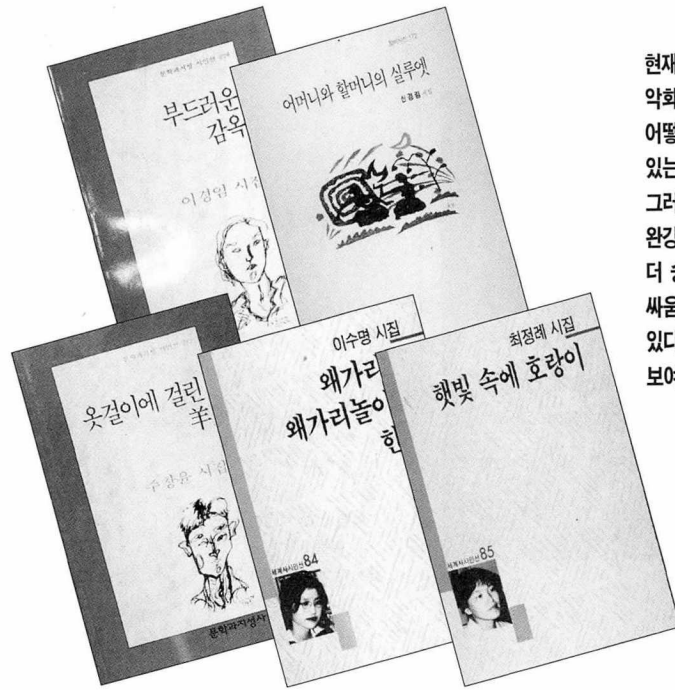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 시가 더 악화된 현실의 우울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기획된 몇 권의 시집이 보류되거나 무산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시인들의 마음은 약간 조급해졌거나 아예 언어에 등을 돌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많은 시인들은 완강한 자기세계를 향해, 혹은 이 세계와의 불화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훨씬 더 숭고한 언어와의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문법에 자리한 시적 언어

이수명은 우리 문학을 설명하는 다른 문법을 통해 주목받아야 할 시인이다. 그녀의 시들이 구사하는 눈부신 감각의 언어들은 우리 시의 또다른 풍요로움이라고 말해야 할 곳에 위치한 한 반란이다. 그녀의 두번째 시집인 《왜가리는 왜가리놀이를 한다》(세계사)를 지배하는 언어는 그녀식으로 더욱 집요하고도 은밀하게 장악한 시적 유희다. 그 유희는 김춘수나 김중삼이 보여주었던 그것들과 일면 대화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비껴선 곳에 있다. 우리 시의 주류가 외면해온 자리에 독특하게 솟아난 그녀의 언어는, 그것들이 서로의 행과 행, 연과 연을 이어주는 의식의 긴장과 충돌로 극대화될 때 김춘수, 아니 김중삼의 다른 환영을 떠올리게 하며, 약간의 틈을 엿보일 때조차 우리 시의 주류가 행해온 시적 문법과는 훨씬 다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고투와 건승을 본다.

신경림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창작과비평사)의 표제가 주는 뉘앙스는 흥미롭다. 그것은 그답지 않다는 일차적인 인상과, 무엇보다 환감을 훨씬 넘겼다는 생물학적 나이로 인해 그가 더이상 시적 긴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귀결될 터인데, 그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와의 대화적 삶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인다. 이번 시집은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판단된다. 이 표현 뒤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 그는 가령 김춘수나 서정주가 행해온 시적 열정과 다른 뜻으로 맞먹는 진지함과 구도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시가 악화된 현실의 우울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키 어렵다. 그러나 많은 시인들은 완강한 자기세계를 향해 더 숭고한 언어와의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쓰러진 자의 꿈》과 5년 정도의 시차를 가진 이번 시집에서 “몰락한 사회주의를 현장에 가서 목도”하고 “이런 격랑 속에서 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후기)란 처절한 반성의 심회를 토로한다. 그의 심회는 시의 주요한 기을을 이룬다. 그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을 상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혀 퇴행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추억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현재적 삶의 토대로 더욱 강렬하게 살아난다. 그것이 시인을 다른 뜻으로 김춘수나 서정주가 지나간 길과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이다. 그의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느낀 남다른 감회는 여전히 《농무》나 《새재》가 주었던 충격의 그 시적 문법을 견고하게, 그러나 세월의 ‘실루엣’ 속에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막차〉와 같은 시가 70년대의 그 표정을 상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경임은 굳이 나의 선호도로 따지자면 요즘의 젊은 시인들 중에서는 단연 눈에 들어오는 시어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 시적 조형력과 깊이를 내재하고 있는 《부드러운 감옥》(문학과지성사)이 첫 시집이라는 데도 한번 놀랐다. 일상의 부대끼 속에서 시간들과 투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더 궁금하다. 이번 시집의 언어를 보면 너무 성숙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네거티브 요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녀의 시

들은, 자기 식의 어둠을 감싸안은 채, 그것이 주는 묘한 심리적 질감을 사실은 즐기고 있다. 그 질감 속에 시와 시인이 절묘한 화법으로 동거하고 있다. 시집을 무심히 읽다 적어둔 한 구절, “고양이의 등처럼 반질반질해진 비애의 혹을 품고 사는 여자는 더없이 아름답다”(《등꽃》)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그냥 이름다움이 아니라 ‘비애/아름다움’이 엇갈리는 그녀다운 표현의 매력인 것 같다. 그것이 그녀의 시들을 더욱 맛깔스럽게 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시를 주목해 보겠다.

실존의 무게 토로

최정례가 그려내는 그림들(《햇빛 속에 호랑이》(세계사))은 그녀가 마주친 대로의 시간들을 건넌 울림이 있다. 그 그림의 어조들은 때로 패터화될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진지하게 시적 화자의 흔들림을 연출하는 데 이바지한다. 가령, “그를 나무 속으로/밀어넣어 버렸다/나무가 등골에 부풀었다/바람이 부니...흔들렸다”(《드디어》)고 노래할 때, 또 “눈송이 속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사라졌다/나뭇가지 위에서/한숨쉬며 흔들린다”(《눈》)는 돌연한 환상에 돌입할 때,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산뜻하게 팽개치고 진지하게 흔들린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시는 흔들림의 시다. 자신의 내부에서 끓고 있는 의식의 교란, 스치는 풍경의 흔들림, 지나온 시

간의 소외에서 오는 내분을 시인은 자기식대로 받아들인다. 그 수용이 단아한 어조와 단정한 시적 수사를 통해 연출될 때, 그녀의 시는 은근히 씩히는 한편의 삶-이야기다.

주창윤은 독특한 제스처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 나는 그의 첫 시집을 읽고 난 뒤 그를 유심히 여러 곳에서 어떤 의도와 상관 없이 관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그가 보여준 어색한 표정과 제스처를 이번 시집에서 정확하게 환기하게 되었다. 《옷걸이에 걸린 양》(문학과지성사)이라니! 나는 그 시(들)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슈퍼마켓 냉장 식품 코너에 냉동닭들이 수북하다./비닐 봉지로 쌓여 있는 육체가/살아 있는 영혼보다 더 오래 버티는 듯했다./옷장 안에서 가끔씩 종소리가 들렸고/마음의 계단은 미끄러웠다./아주 오래 전 그 영혼의 이름은 무엇이었더라?”(《옷걸이에 걸린 양》)

모두 7편의 같은 제목의 시가 들어 있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문명은 우리들 이마 위에 폭력이 세워놓은 공중 정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폭력과 문명, 더 정확하게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삶에 대해 비판한다. 그 비판이 시적 진실을 넘어설 때, 특히 젊은 시인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 요설의 혐의를 떨칠 수 없게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그의 시는 독특한 제스처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그 제스처는 개인과 사회, 비판과 현실 사이에 애매하게 서 있는 시인(화자)의 위치를 절묘하게 클로즈업시키는 효과음이다. 그 화성이 “비닐 봉지에 쌓여 있는 육체”의 표정을 읽고, 마침내 “나의 옷걸이는 낡고 지쳤다”는 실존의 무게를 토로하게 하며, “육체 없는 생이/영혼 없는 육체의 외피가 이렇게 무겁구나”는 탄식/절규에 이르게 한다. 그의 절규가 거대담론의 비판을 넘어 그 자신의 실존적 삶의 무너로 채색되길 솔직히 나는 고대한다.

이외에도 백창일의 《나는 부리 세운 딱따구리였다》(실천문학사), 함성호의 《성(聖) 타르마할》(문학과지성사), 함기석의 《국어선생은 달팽이》(세계사)를 주의 깊게 읽었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겠지만 더이상 그럴 자리가 없다. 다른 기회에 그들에 대한 읽기의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